

하나 글로벌 데일리



글로벌 지표

미국 / 유럽 증시 / 국제 유가					
지수	증가	1D(%)	1W(%)	YTD(%)	
Dow	▲	35,927.4	1.1	0.5	17.4
S&P500	▲	4,709.9	1.6	0.2	25.4
NASDAQ	▲	15,565.6	2.2	(1.4)	20.8
STOXX50	▲	4,159.7	0.4	(1.7)	17.1
VIX	▼	19.3	(11.9)	3.1	(15.2)
WTI(원물)	▼	70.9	0.2	(2.1)	46.1
BRENT(원물)	▲	73.9	1.6	(2.1)	44.4
금	▲	1,776.9	0.3	(0.3)	(6.4)

전일 아시아 / 신흥국 증시					
지수	증가	1D(%)	1W(%)	YTD(%)	
KOSPI	▲	2,989.4	0.1	(0.4)	4.0
KOSDAQ	▲	1,003.5	0.1	(0.3)	3.6
일본(Nikkei)	▲	28,459.7	0.1	(1.4)	3.7
중국(상해종합)	▼	3,647.6	(0.4)	0.3	5.0
홍콩(H-Share)	▼	8,342.9	(0.9)	(2.1)	(22.3)
홍콩(항셱)	▼	23,420.8	(0.9)	(2.4)	(14.0)
대만(TAIEX)	▼	17,660.1	0.4	(1.0)	19.9
인도(Sensex)	▼	57,788.0	(0.6)	(1.5)	21.0
인니(자카르타)	▼	6,626.3	0.2	0.3	10.8
베트남(호치민)	▼	1,475.5	(0.0)	1.6	33.7
러시아(MOEX)	▼	1,541.0	(0.5)	(4.5)	11.1
브라질(Bovespa)	▲	107,431.2	0.6	(0.6)	(9.7)

Global Event Calendar (현지시간 기준)	
16일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12월 FOMC 발표 ECB 통화정책회의
17일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BOE 통화정책회의 싸이월드 메타버스 버전 베타서비스 시작
18일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G7 외교장관 회의 12월 국내 부동산매매 분량 개시

글로벌 증시

Global 증시 마당 사항

- ▶ 미국/유럽 증시**
 - 미국 증시는 매파적 FOMC 결과에도 불확실성 해소를 인식하며 상승 마감
 - 내년 1월 부터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300억 달러씩 줄이며 테이퍼링 가속화 계획 제시
 - 내년 연내 최대 3회 기준금리 인상 할 수 있다고 언급
 - 미 원위에서도 부채한도 상향안이 통과하며 디폴트 우려 해소된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
 - 테이퍼링 가속화 및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에도 미국채 10년 물은 1.5bp 상승에 그침
- ▶ 중국 증시**
 - 분토증시는 두번째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고, 11월 소비투자 등 중국 주요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밑돈 것이 재로 작용하여 하락 마감.
 - 업종별로는 전력, 석탄, 발전설비, 환경보호 강세. 의료기기, 식품, 가구, 주류 약세 마감.
 - 홍콩증시는 중국 분토 경기둔화 우려로 인해 하락 마감

Global Issue & News

- ▶ 미국 FOMC 기준금리 동결**
 -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 결정하고 내년 1월부터 매달 300억달러씩 순자산 매입 규모 축소 계획 발표. 이에 따라 자산매입 프로그램은 내년 3월에 종료 예정
 -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수급 불균형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계속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
 - 분기 경제전망은 5.5%로 하향 조정 했으나 강한 성장 지속 전망. 점도표 상으로 2022년 금리 인상 3회, 23년과 24년에도 각각 3회, 2회 금리 인상 예상
- ▶ 미 아닌 부채한도 협상 통과**
 - 전일 미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정부부채 한도를 2.5조 달러 증액시키는 법안 통과
 - 이번 법안 통과로 미 부채 한도는 31.4조 달러까지 상향.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디폴트의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한편 법안 통과에도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후세대에 빚을 넘기는 행동이라며 비난
- ▶ 중국 신규주액 가격 6년만에 최대 하락**
 - 중국 국가주액이 발표한 11월 중국의 신규 주액 가격 MoM -0.3%
 - 이는 2015년 2월 이래 6년만에 월별 최대폭 하락
 - 로이터통신은 중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인 부동산 분야가 유통성 위기와 강력한 규제에 따른 수요 속에서 최근 몇 개월 간 급격히 위축됐다고 보도
- ▶ 미국, DJ 등 중국 집단 기업 8곳 추가 제재 예정**
 - 파이낸셜타임스는 조 바이든 정부가 이르면 16일(현지시간) 중국 기업 8곳을 투자 제한 기업 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보도
 - 세계 최대 상인 드론 제조사 DJ를 비롯한 중국의 군산복합체 기업들이 포함될 전망
 - 미국 기업과 개인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에 신규 투자를 하려면 재무부의 허가가 필요. 기존 투자자들도 1년 내에 지분을 매각해야 함

글로벌 업종/종목 퍼포먼스

미국 / 중국 / 유로존 (GICS Lv.1)					미국 / 중국 전일 주가 상승폭 상위 16 종목					미국 전일 신고가 리스트					
구분	산업별	증가	1D(%)	1W(%)	1M(%)	지수별	타커	종목명	증가	1D(%)	1W(%)	1M(%)	타커	종목명	신고가(USD)
미국	에너지	214.8	(0.5)	(3.3)	(4.7)	S&P500	NCLH	노르웨이저인 크루즈	20.1	(1.3)	(7.8)	(21.3)	PG	P&G	159.6
	소재	392.1	(0.1)	(0.7)	(2.5)		CCL	카니발	17.9	(1.4)	(8.4)	(19.8)	PFE	화이자	58.9
	산업재	398.8	(1.0)	(2.0)	(3.9)		RCL	로얄 캐리비안	70.6	(1.4)	(6.3)	(17.2)	CHD	처치 & 드와이트	100.1
	경기소비재	654.2	(0.6)	(4.4)	(3.7)		LVS	라스베이거스 샌즈	36.0	(1.0)	(7.0)	(12.9)	AME	아메텍	144.5
	필수소비재	297.1	(0.1)	3.2	2.3		UAL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41.5	0.3	(8.3)	(17.8)	CNC	센텐	83.6
	헬스케어	436.7	(0.5)	0.8	0.8		FTI	테크넬/PMC	5.9	0.0	(10.7)	(14.2)	UNH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495.4
	금융	210.6	0.5	(1.1)	(4.0)		NVR	NVR	5,907.4	1.3	0.3	11.9	MLM	미던 마리아에타 머티리얼스	440.9
	IT	675.4	(1.7)	(2.7)	(0.2)		ETS	엡스	229.1	5.3	(6.9)	(16.0)	BRK/B	버크셔 해서웨이	296.5
	커뮤니케이션	86.6	(0.5)	(2.2)	(6.0)		EXPE	익스피디아	157.6	(0.4)	(8.6)	(11.2)	DGX	퀵스트	168.9
	유틸리티	203.7	(0.6)	0.8	2.7		BBB	바이오젠	235.9	2.2	0.5	(13.2)	ABBV	아브비	130.8
부동산	1,450.9	(1.4)	(1.1)	1.3	BW		에드워즈	119.9	2.6	0.4	2.8				
중국	에너지	369.9	(1.7)	(1.4)	2.8		CSB00	스탠리 블랙 & 데커	192.0	0.3	(0.1)	(1.1)			
	소재	1,167.0	(2.6)	(2.7)	(0.5)		SWK	페이팔 홀딩스	190.7	2.1	(3.4)	(10.3)			
	산업재	144.8	(1.8)	(1.6)	2.9		CTLT	캐탈라트	127.1	3.8	(0.3)	(0.9)			
	경기소비재	255.7	(1.6)	(2.1)	(16.7)		BVIN	이스트만 케미컬	117.9	1.8	0.8	2.4			
	필수소비재	1,951.8	0.4	2.1	6.0		REGN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	657.9	(1.9)	0.6	1.6			
	헬스케어	294.7	(0.3)	(2.2)	(7.9)	002456	어우페이강 집단	9.0	(1.2)	(1.2)	3.7				
	금융	421.9	(1.1)	(1.0)	(0.8)	002945	Chinalin Securities Co	13.6	(2.0)	14.3	29.3				
	IT	972.5	(1.5)	(1.6)	(6.2)	600588	음유 왕루오 과기	35.7	(0.7)	1.8	8.7				
	커뮤니케이션	133.7	(1.4)	(2.2)	(8.9)	002624	퍼펙트 월드	21.8	(2.8)	4.0	2.3				
	유틸리티	786.8	0.6	3.3	8.5	002304	장쑤 양허택주	181.6	(2.6)	(2.3)	2.2				
부동산	985.2	(5.0)	(7.3)	(9.8)	002939	China Great Wall	13.5	0.7	(2.5)	23.2					
유로존	에너지	115.6	0.6	(2.8)	(2.5)	002233	위안통 속대	16.9	(0.6)	(4.1)	19.3				
	소재	346.7	(0.0)	(0.8)	0.8	002475	릭스웨이 정밀산업	45.4	(2.1)	2.9	5.8				
	산업재	333.0	(1.7)	(2.8)	(4.2)	002241	고어텍	56.7	(0.6)	3.2	12.9				
	경기소비재	222.6	(1.3)	(2.9)	(5.2)	601238	광저우 기자 집단	16.3	(1.0)	(3.3)	(1.6)				
	필수소비재	302.6	(0.2)	0.7	(0.5)	002008	한스 레이저 기술 산업	51.5	0.2	5.3	23.8				
	헬스케어	249.4	(1.4)	(0.5)	(2.9)	002812	원난 연제 신재료	258.2	0.1	1.6	(3.6)				
	금융	63.9	0.2	(1.6)	(5.7)	600150	중국선박공업	25.2	(0.8)	0.4	13.1				
	IT	184.3	(2.4)	(3.8)	(8.4)	603986	Gigadevice	170.5	(1.2)	(5.6)	4.5				
	커뮤니케이션	53.2	0.1	(0.3)	(3.0)	002938	Avary Holding	40.7	0.6	5.3	2.7				
	유틸리티	138.9	(0.5)	(0.7)	(0.9)	000977	인스퍼 전자정보산업	35.2	0.3	3.3	9.4				
부동산	862.6	(0.9)	(3.1)	(4.2)											

ETF 퍼포먼스

업종별 ETF					스타일, 자산별 ETF					테마별 ETF				
종목명	증가	1D	1W	1M	종목명	증가	1D	1W	1M	종목명	증가	1D	1W	1M
필수소비재(XLP)	76.0	1.0	4.1	4.3	성장주(VUG)	319.0	2.0	-0.4	1.0	친환경(ICLN)	21.7	1.7	-5.5	-12.9
자유소비재(XLY)	201.1	1.3	-2.7	-1.0	가치주(VTV)	145.2	0.9	1.1	0.2	혁신산업(ARKK)	95.4	2.2	-4.7	-18.7
금융(XLF)	39.0	0.3	-0.8	-2.7	선진국(EFA)	77.6	1.4	-2.3	-4.1	우주항공(UFO)	27.3	0.8	-1.1	-11.0
IT(XLK)	173.9	2.6	0.8	5.2	신흥국(EMCG)	59.0	-0.2	-4.2	-7.2	클라우드(SXV)	104.7	2.5	-2.0	-10.7
헬스케어(XLV)	138.1	2.0	4.0	3.7	채권종합(AGG)	114.3	-0.1	-0.1	0.0	온라인소매(O NLN)	57.6	0.3	-6.4	-17.7
원자재기업(XLB)	87.9	0.2	0.0	-1.7	국채(COVT)	26.5	-0.2	-0.1	0.3	ESG(ESGU)	106.6	1.6	-0.1	0.4
에너지기업(XLE)	55.2	-0.5	-3.7	-4.4	경기국채(TLT)	149.3	-1.0	-1.2	0.9	생명공학(IGB)	151.9	2.2	0.6	-1.0
유틸리티(XLU)	70.7	1.6	2.6	6.0	물가재(TIP)	128.4	0.1	-0.7	-1.6	엔터&레저(PEJ)	46.0	0.2	-2.9	-10.3
통신(XLC)	79.9	1.1	0.2	-3.9	KG회사채(LQD)	133.0	0.1	-0.5	-0.1	핀테크(ARKF)	41.3	1.4	-5.9	-20.1
산업재(XLI)	104.2	0.9	-0.8	-1.8	HY회사채(HYG)	86.8	0.4	0.0	0.0	전기차(ARKV)	54.5	2.3	-2.3	-0.9
반도체(SMHI)	310.2	4.1	-1.4	4.1	리츠(VNQ)	111.9	1.4	0.6	2.0	시로봇(ARKB)	77.0	1.4	-4.3	-11.6
은행(XBE)	54.0	0.5	-1.9	-6.4	한국채(EWY)	78.7	1.3	-2.9	0.1	농업(MOO)	93.5	0.7	-0.4	-2.6

미국(선진국)

테크 / 플랫폼

▶ 애플(AAPL.US): 코로나19 확산에 매장 3곳 잠정 폐쇄

- 애플은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3개의 매장을 잠정 폐쇄
- 미아리아의 한 매장은 목요일까지, 오프라인 오프라인 매점과 애플스토어 세 번째 매장은 금요일까지 문을 닫을 예정
- 애플 대변인 성명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고객과 직원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조리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정기적인 테스트와 일일 건강 검진, 직원 및 고객 마스크 착용, 청소 및 유급 병가를 결합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계속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 애플은 매장 직원들이 다시 문을 열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폐쇄하는 기간이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미국 내 모든 매장에서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

▶ 알파벳(GOOG.US): 백신 미접종자 결국 해고 조치할 것

- 구글은 임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고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영진이 배포한 메모에 따르면, 임직원들이 12월 3일까지 예방 접종 상태를 신고하고 접종 완료 확인서를 업로드하거나 의료 또는 종교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나와 있음. 테드라인 이후 업로드하지 않았거나 백신 접종을 받지 않거나 면제 요청이 승인되지 않은 임직원들에게 따로 연락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1월 18일까지 백신 접종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은 30일 동안 '유급 관리 휴가', 이후 최대 6개월간 '유급 휴가'를 부여한 뒤 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구글 대변인 성명에 따르면, 백신 접종 요구 사항은 임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백신 접종 정책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 바이든 행정부는 직원이 100명 이상인 미국 기업에 1월 18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거나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받도록 명령

소비재 / 헬스케어 / 금융

▶ [금융 전반] 미 상하원, 정부 부채 한도 상향

- 14일 미국 의회 표결에서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미 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안건에 가결 처리
- 올에 미 정부는 부채 한도 적용으로 빚이 늘자 국채를 새로 발행하기 어려워짐, 일시적으로 부채 한도를 28조 9000억 달러로 늘리는 법안 처리
- 이는 군인과 퇴역군인, 의료 혜택 및 교육, 사회복지 수혜자들에게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라고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발표했다

산업재 / 에너지 / 통신

▶ 보잉(BA.US) 올해 항공기 발주 물량 에어버스 앞섰으나 인도량은 부진

- 올해 현재까지 보잉이 항공기 발주 물량에서는 경쟁사 에어버스를 앞섰으나 787 인도 지연 이유로 인도 수량은 연차이 적었던 것으로 확인됨
- 11월 보잉은 91기의 순 주문을 얻어 내었으며 같은 기간 에어버스는 243기의 순 주문을 기록
- 11월 누적 기준으로 보잉과 에어버스는 각각 400기, 2437기의 순 주문을 기록함
- 에어버스는 두바이 에어쇼에서 미국의 P&A인 Indigo Partners로부터 2557기의 A321neo 발주를 따냄
- 항공기 제조 및 인도 기준으로는 에어버스가 3년 연속 항공기 제조 업체 1위를 지켜낸 것으로 예상
- 11월 보잉은 34기를 인도하였고 에어버스는 58기를 인도함
- 11월 누적 기준으로 에어버스는 총 5187기를 인도한 반면 보잉은 3027기를 인도하는데 그침

▶ 레나(LN.US) 4분기 실적 발표(11월 결산)

- 레나의 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었으나 EPS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함
- 미국 주택 수요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매출과 순이익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
- 미국 주택 경기 활성화는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확산과 인구 밀집도가 낮은 교외 지역 넓은 집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촉발됨. 한편 원재료 및 인력 부족이 겹치며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
- 4분기 주택 수주량은 15,539채로, 전년 대비 2.1% 상승. 밸류 기준 73억 달러(+16% yoy)
- 4분기 주택 인도량은 17,819채로, 전년 대비 11% 증가
- [4분기 실적] 매출액 84억 달러(+23.4% yoy/ 컨센서스 83억 달러), 순이익 12억 달러(+35.2% yoy), EPS 3.91 달러(+38.7% yoy/ vs. 컨센서스 4.15 달러)
- [연간 실적] 매출액 271억 달러, 순이익 44억 달러, EPS 14.27 달러

▶ 케이케이알(KKR.US): 보스턴 Class A 건선(Drydock) 오피스빌딩 인수

- 케이케이알은 235백만달러 규모의 건선오피스 빌딩 두 채 인수, 스웨덴 건설 기업인 스칸스카는 해당 부지의 디벨로퍼임
- 보스턴에 위치한 투자회사인 시너지가 운용사로서 관리 담당을 맡게됨
- 해당 두 건선 오피스 빌딩은 스칸스카가 개발 및 시공 하였고,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골드 등급 수여받을. 임차인은 10,000 평당 피트가 넘는 아웃도어 매장이며, 주차시설은 1,000 평방피트 중 0.6 비율로 완비
- 케이케이알은 두 오피스빌딩의 매입으로 주변에 밀집된 바이오/제약사들과의 인프라 구축 예정

투자유망종목

투자유망종목 Weekly (12/15~12/21)

종목	코드	시총(조)	편입일	1D(%)	누적(%)
마이크로소프트	MSFT.US	2,978	3/24	1.92	41.81
아마존닷컴	AMZN.US	2,084	11/24	2.50	(2.97)
퀄컴	QCOM.US	251	11/17	4.01	4.34
에스티로더	EL.US	156	3/10	2.34	30.37
유나이티드렌탈	URI.US	29	7/14	1.06	6.08
TSMC	TSM.US	740	10/20	3.53	4.39
D닷컴	JD.US	136	8/25	(5.14)	12.06
중신증권	600030.CH	60	12/8	0.30	0.96
금종과기	2208.HK	14	11/17	(1.62)	(2.75)
CMC엔릭	3889.HK	3	12/01	(0.89)	4.32

중국

IT / 플랫폼

▶ 메이판(3690.HK): 일부 지역 디지털위안화 체험 오픈

- 메이판APP은 본격적으로 상해, 해남, 선전, 등 9개 지역에 디지털위안화 체험 오픈
- 음식 배달, 시, 일회용 제품 주문이 없으면 디지털위안화 쿠폰 획득

▶ 알리바바(BABA.US): 광시소비위원회와 연담, 감독 강화할 것을 요구

- 12월 14일 광시소비위원회는 핀둬둬, 알리바바, 징둥 등 플랫폼과 연담
- 정부는 아동용 안경, 단백질, 아동용 속옷, 생리대 등 제품 검사내용, 그 중 아동용 속옷 40% 기준 미달
- 이에 전자상거래 기업들에게 전자상거래 질서 유지, 감독 강화 제품 품질 개선할 것을 요구

▶ SMIC(00981.HK): 미국 제재 강화 검토 소식으로 12/15 주가 -6.4% 급락 마감

- 12/14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선진기술 획득 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사인 SMIC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검토 중
- 역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는 목요일에 회의를 열어 상무부와 국방부, 국무부, 에너지부와 함께 해당 관련 규제를 논의할 예정
- 검토 중인 제재 내용으로는 SMIC에 미국산 제품 수출 관련 규제 강화가 있으며, 만약 해당 규제강화안이 채택될 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Lam Research 등의 미국 기업들은 SMIC에 장비를 공급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제한될 예정
- 현재는 선진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특수(uniquely required) 장비 수출만 금지되었다면, 전자부품 제조에 사용되던 장비를 포함한 사용 가능한(capable for use) 장비까지 수출 제한에 대한 논의할 할 예정이라고 밝힘

소비재 / 헬스케어

▶ 하이얼스마트홈(600690.CH/6690.HK): 소형 가전 제품 개발에 35억위안 투자

- 15일 35억위안 투자에 스마트 생활 가전 플랫폼 설립, 소형 가전 제품 연구 개발에 본격적으로 투자, 스마트 가전 솔루션 제공할 것
- 중국 소형 가전 제품은 가구당 10대 미만으로 미국, 유럽 30-50대 대비 상승여력 충분
- 15일 하이얼스마트홈은 임직원 18명에게 스톡옵션 452.5만주, 한 주당 25.6위안에 발행할 것으로 공시
- 콰이서우의 12월 11일 '콰이서우의 밤' 행사, 3시간 라이브방송 진행, 매출액 1.28억위안 돌파, 아이얼스마트홈 삼익계 계층 팔로워 8천명 손중

▶ 안타스포츠(2020.HK): 여전히 강한 스포츠웨어 수요

- 올해 3분기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닝쇼크 기록, 최근 10월과 11월 실적에서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음
- 4분기 실적 개선에는 11월 광군절 호실적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정
- 광군절 쇼핑 기간이었던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안타스포츠의 GMV(총거래액)는 YoY 61% 성장해 전년대 광군절 기간 GMV 성장률(YoY +53%)을 상회했고, ANTA와 FILA가 모두 YoY 50~60% 고성장
- Tmall 기준으로 안타스포츠가 광군절 기간 스포츠웨어 부문 시장점유율 22%로 전체 1위를 기록했고, 브랜드별로는 ANTA가 2위, FILA가 5위를 차지
- 이번 온라인 판매 실적 호조를 통해 중국 스포츠웨어 수요의 근간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 확인됨

전기차 / 신에너지

▶ [태양광] 중국 태양광발전 설치량, 기대치보다 부진했던 2021년과 기대되는 2022년

- 12/15, 중국 태양광 산업 협회 명예 이사장은 중국 태양광 산업의 연례 컨퍼런스에서 태양광 업계 전반적인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기대치보다 설치량이 부진했어서 2021년 태양광발전 연간 설치량 전망치를 기존 55GW-65GW에서 45GW-55GW(vs. 2020년 48GW)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힘
- 2022년 중국 태양광발전 설치량은 막대한 태양광발전 설치 프로젝트 보유량을 기반으로 75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추천 ETF

분류	종목코드(ETF명)	기초자산	투자포인트
주식형	XLK (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	미국 기술주	글로벌 빅테크 등락 가운데 이익률이 높은 기술주 종목들이 부각될 수 있을 것
주식형	META (Roundhill Ball Metaverse ETF)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	전세계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입, 기간은 짧지만 트랙레코드 우수, 장기적 우상향 전망
주식형	MTUM (Shares MSCI USA Momentum Factor ETF)	미국 모멘텀 주식	미국의 중대형 모멘텀 주식에 투자하는 ETF, 트랙레코드 우수, 장기적 우상향 전망
주식형	QUAL (Shares MSCI USA Quality Factor ETF)	미국 퀄리티 주식	펀드멘탈에 의한 수익률 차별화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